



## 오 록 도 행복 칼럼

허목  
남구보건소장

최근 코로나19의 2차 국내유행이 전국적 클러스터(군집)로 발생하고 있고 부산지역도 소규모 집단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가을 부터 겨울까지 늘어날 호흡기 환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벌써 걱정이 앞선다.

코로나19는 치사율이 지금까지는 1.6% 전후로 높지 않아 다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독감이나 일반감기와 달리 특이 치료제도 마땅한 백신도 없는 상황이며, 감기나 독감 등과도 증상이 유사해 구별이 쉽지 않아 독감이 유행하거나 환절기에 호흡기 환자가 늘어나면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연말 중국 우한에서 원인미상의 폐렴환자가 발생하고, 1월 국내로 환자가 유입

된 뒤 국내 감염자가 발생하면서부터, 우리 남구는 코로나 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 동시에 검체 채취를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는 양방향 검체 부스도 개발하게 되었다. 또한 대구 지역에서 대규모 환자발생이 있었던 지난 3월에는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구보건소 전문인력 5명을 대구로 파견해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남구의 선제적 방역조치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예방노력에 힘입어 코로나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사망자가 없는 등 큰 혼란 없이 지금까지 대응을 해 오고 있다.

올 가을과 겨울,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전

담클리닉도 준비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도 호흡기 전담클리닉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함께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코로나 없이 살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감염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누구나 걸릴 수 있게에 감염자를 절대 비난 하어서는 안된다.

감염자를 비난하고 감염자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유하거나 공개하게 되면 감염자 본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비난이 두려워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동선을 감추게 돼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감염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주고 격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환절기나 동절기에 체온관리와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재택근무를 하거나 며칠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호전이 없으면 선별진료소나 호흡기클리닉을 방문해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코로나 환자 발생의 가장 큰 부분은 가족 간의 감염이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족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자가격리를 통해 가정 내 전파를 막아야 한다. 만성질환을 포함한 기저질환자들은 특히 접촉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일상 생활을 하면서도 확진자 동선에 항상 관심을 갖고 동선이 겹치면 보건소나 전화 1339(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할 것을 권고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발생시 즉시 감염가능성이 큰 접촉자는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고 심층조사를 통해 추가로 접촉자를 찾아 연락을 취한 이후 대부분 동선이 공개되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며 손씻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도 생활화해야 한다. 함께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할 때는 가능한 한 반찬을 미리 덜어서 먹고 대화는 자제하고 대화 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소규모 발생은 주로 가까운 사람끼리 식사나 모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화되어야 한다. 누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릴 수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되며 감염병은 함께 풀어야 할 사회문제이다.

##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집행 신청

### 박보름 변호사의 생활법률

Q. 남편과 재산상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매월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

다. 그러나 전남편은 수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치가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비양육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권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비양육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지급하지 않는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이내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양육비 이행 확보에 필요한 법적절차 지원 등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1회만 신청하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으로 집행권원은 확보된 상황으로 보이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전남편의 상황에 따라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남구청 법률상담터

\* 법률상담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복지의 제도’입니다.



##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2020. 9. 23.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활기찬성도 재활센터	문현동	사회복지사	2명	2020. 9. 23 ~ 채용시	월급 1,950,000원	639-1008
라온에스테틱	용호동	피부 및 체형관리사	2명	2020. 9. 23 ~ 채용시	월급 2,100,000원	625-1085
(재)소화영어 재활원	감만동	생활재활교사	1명	2020. 9. 23 ~ 채용시	월급 1,821,000원	644-1729
(주)음식(창)장예민 채용	감만동	제조단속 총사원	1명	2020. 9. 23 ~ 채용시	월급 2,080,000원 2,083,630원	070-4423-8830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대연동	병원급식 조리사	1명	2020. 9. 23 ~ 채용시	월급 2,050,000원	629-8087
연세치과의원	용호동	간호조무사	1명	2020. 9. 23 ~ 채용시	시급 8,590원	929-2875
김기네 메트로힐탑점	용호동	분식조리사	명	2020. 9. 23 ~ 채용시	월급 2,600,000원	010-7521-9288
투엠글로벌 주식회사	감만동	도로운송 사무원	1명	2020. 9. 23 ~ 채용시	연봉 21,543,720원	715-1885
새차느김부부정비	대연동	자동차 정비원	1명	2020. 9. 23 ~ 채용시	월급 2,300,000원 ~ 2,800,000원	621-1194
(주)금성전력	대연동	내선 전기공	1명	2020. 9. 23 ~ 채용시	월급 2,800,000원	907-7891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배출안내문

일자	9.30.(수)	10.1.(목)~10.3.(일)	10.4.(일)
배출 품목	• 재활용품(캔, 고철, 유리병, 의류, 스티로폼) • 연탄재, 소형 폐가전, 소형의 간선편지(전용매대)	배출금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 공동주택은 배출 및 수거일자가 다를 수 있음

○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배출시간 : 해진 뒤부터 ~ 23 : 00까지)

○ 수거업체

▷대방환경(624-8282) : 대연1.4.5.6동, 용호1동 엘리메트로1단지, 문현동

▷선도산업(626-8131) : 대연3동, 용호동(엘지메트로1단지 제외),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 추석 연휴 남구 내 병원·약국 운영 현황

의료기관명	주소	대표전화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10월 4일
부산성모병원	용호로232번길 25-14(용호동)	933-7114	응급실 운영(정형외과 응급 외상진료만 가능)				
부산아동병원	수영로 228, 3-7층(대연동)	612-7582	09:30~13:00		09:30~13:00	09:30~13:00	09:30~13:00
위대항병원	수영로 241(대연동)	928-9000	09:00~12:00				
부산고려병원	수영로 238(대연동)	930-3000	00:00~24:00	00:00~24:00	00:00~24:00	00:00~24:00	00:00~24:00
월리소오양병원	수영로 185-7(대연동)	638-7575			09:00~12:00		
W365메디칼의원	분포로 145(용호동)	622-0365	09:00~16:00		09:00~16:00	09:00~16:00	09:00~16:00
김홍준내과의원	석포로 76, 3층(대연동)	628-6422	09:00~13:00				
다솔의원	전포대로91번길 47(문현동)	637-7855	10:00~21:00		10:00~21:00	10:00~21:00	10:00~21:00
동재비뇨기과의원	용호로 144(용호동)	627-8825				09:00~13:00	
메리칼안과의원	동영로 137(대연동)	621-3434			09:00~13:00		
비타민내과의원	용호로 152(용호동)	612-8273				09:00~13:00	
성천의원	용호로 129(용호동)	625-8575				09:00~13:00	
세종의원	수영로 30-1(문현동)	642-9977	09:00~16:00			09:00~16:00	09:00~13:00
양성연내과의원	분포로 115(용호동)	624-7582	09:00~18:00				
오록도신경외과의원	용호로 141(용호동)	611-2621				09:00~13:00	
윤현기정형외과의원	고동골로 16(문현동)	644-8275	09:00~13:00				
이기대정형외과의원	용호로 154(용호동)	627-8875				09:00~13:00	
정문호내과 의원	석포로 67(감만동)	642-1847	09:00~13:00				
대연어린이치과의원	수영로 324(대연동)	791-1275			15:00~17:00		
새로운치과의원	수영로 195-5(대연동)	633-2804				10:00~12:00	
용호탐치과보철과 치과의원	용호로 127, 3층(용호동)	623-8828		10:00~13:00			
우암치과의원	우암로 148	637-2875	10:00~12:00				
윤치과의원	고동골로28번길 3(문현동)	645-2875					10:00~12:00
유리하의원	용호로 144-1(용호동)	622-0660	09:00~12:00		09:00~12:00	09:00~12:00	
천결출원의원	수영로 240-11(대연동)	756-3888				10:00~15:00	
21세기우리내과국	수영로 43	646-8260	09:00~19:00			10:00~16:00	
건원약국	우암로 72	632-5267	09:00~18:30		09:00~18:30	09:00~18:30	09:00~18:30
대연약국	석포로 76(대연동)	628-9523	09:00~13:00				
금강산약국	홍곡로 17(감만동)	636-8652	09:00~18:00				
금호약국	동영로 139	625-1950	09:00~21:00		09:00~21:00	09:00~21:00	
대문약국	진남로 9	627-5677	09:30~20:30				
대연약국	수영로 239	624-7484	09:00~13:00				
대학당약국	창고개로 26(우암동)	646-2962	09:00~14:00				12:00~18:00
대충천보약국	고동골로 80(문현동)	634-5810	09:00~18:00			10:00~15:00	
동원약국	분포로 145, 2층(용호동)	611-8700	09:00~20:00		09:00~16:00	09:00~16:00	09:00~16:00
미트약국	수영로 33(문현동)	643-2865	09:00~20:00		11:00~18:00	09:00~20:00	
명동당약국	지개골로 28(문현동)	644-8423	09:00~16:00			09:00~16:00	09:00~13:00
명진약국	용호로7번길 75(대연동)	623-6595				10:00~20:00	
문화약국	석포로 128(대연동)	624-0950	10:00~18:00		14:00~20:00	14:00~20:00	14:00~20:00
백색약국	못골로 26-1, (대연동)	632-2133	09:00~18:00		09:00~18:00	09:00~18:00	
불광약국	수영로 151-1(대연동)	632-5777	10:00~17:00	10:00~17:00	10:00~17:00	10:00~14:00	
사랑약국	수영로 228(대연동)	010-794-1480	09:00~13:00	16:00~17:00	09:00~13:00	09:00~13:00	09:00~13:00
사상오제사성당약국	신선로 333(용호동)	624-8875				09:00~13:00	
새물약국	용호로42번길 14(용호동)	611-2284	12:00~21:00			09:30~18:00	
성모정문약국	용호로 267(용호동)	628-6283	09:00~22:00	09:00~22:00	09:00~22:00	09:00~22:00	
성심약국	용호로 157(용호동)	623-6567	09:00~20:00				
소정약국	전포대로92번길 6(문현동)	647-3207	09:00~14:00				
수아약국	동영로158번길 101	626-7168	09:00~20:00	14:00~18:00	14:00~18:00		
시민약국	동영로 135-11(용호동)	625-8850	09:00~21:00	09:00~21:00			09:00~21:00
신성약국	용호로42번길 75(용호동)	628-0818	09:00~12:00				
신영호대형약국	용호로 141(용호동)	628-7227	09:00~14:00			09:00~14:00	
신중왕약국	용호로 144(용호동)	623-6900	09:00~20:00	09:00~20:00	09:00~20:00	09:00~20:00	09:00~20:00
신혜약국	분포로 115(용호동)	628-0304	09:00~13:00				
상상약국	수영로 219(대연동)	627-6209	09:00~18:00				
월린약국	우암로 73	635-7119	09:00~15:00				
오록도약국	용호로 173	622-2900	09:00~17:00				
온누리한빛약국	수영로 201	621-0636	09:00~20:00		09:00~20:00	09:00~20:00	09:00~20:00
올리브약국	오목도로 85(용호동)	627-8889	09:00~13:00			09:00~13:00	
우성약국	진남로 206	637-9835	09:00~18:00			09:00~18:00	09:00~18:00
우암센텀약국	유엔로 14(우암동)	637-1637	10:00~17:00		10:00~17:00	10:00~17:00	
은성약국	동영로 164번길 100	624-3106		09:00~18:00	09:00~18:00		
이발약국	전포대로91번길 47	645-1560	10:00~22:00	13:00~18:00	10:00~22:00	10:00~22:00	10:00~22:00
일광약국	홍곡로 12(감만동)	636-3267	09:00~20:00				
일출약국	수영로 323(대연동)	611-2296	09:00~13:00				
정민약국	수영로 30-11	637-0329	09:00~16:00			09:00~16:00	09:00~13:00
정성약국	수영로 240(대연동)	611-3355	14:00~19:00				
침홍은약국	용호로90번길 25(용호동)	623-2688	09:00~19:00				
무문약국	동영로 137(용호동)	621-0040	09:00~20:00		09:00~20:00	09:00~20:00	
하이라운약국	전제도로 29	627-6101	09:00~19:00			09:00~19:00	
한마음약국	수영로 298(대연동)	627-6489					11:00~18:00
현대대리점	우암로 68(감만동)	642-8478	09:00~17:00				
현대메디칼	고동골로78번길 12	631-5892	09:00~13:00				
희망약국	황령대로319번길 158-4(대연동)	612-7585	10:00~19:00				

## 독자의 소리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와 지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실 ☎607-4077, 1225honey@korea.kr

### 곽태욱의 바람고개 이야기II

## 왜군, 백운포 대신 우암만으로 상륙

1592년 5월 23일(임진년 음력 4월 13일), 조선 침략 선봉대 1만 8,700명을 태운 700여 척의 왜군 병선이 절영도 앞바다를 가득 메웠다. 선봉장은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근 고니시 유키나가였다.

고니시는 절영도 앞바다에 정박한 뒤 일체의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알려진 바 없지만, 부산포 진영의 조선군 반응을 떠벌 겸 전열을 기다렸던 것인지도 모른다. 왜군의 출현에 대해서는 조선 조정으로 보내는 사절단 또는 조공 행렬 정도로 생각했다는 설이 있으나, 절영도에서 사냥을 멈추고 급히 부산진성으로 돌아온 부산진 첨사 정발 장군은 성문을 굳게 닫고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왜군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부산포 진영에서도 정탐선은 띄우지 않았다. 이윽고 어둠이 깔리고 밤이 깊어갔지만 서로 간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나 뒷날 여명이 미처 떠오르기 전에 고니시는 뱃바리를 틀어 모래사장이 있는 우암만으로 군사를 상륙시켰다. 육로가 끊긴 절영도는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지만, 우암만보다 훨씬 나은 상륙지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곳은 해가 무릎살 밑바닥처럼 움푹 들어간 천혜의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는 백운포였다. 그런 곳을 놔두고 고니시는 왜 절영도 앞바다에 선단을 노출시켰으며, 왜 부산포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우암만으로 상륙했을까.

문득 구전을 바탕으로 한 어느 분의 스토리텔링 한 토막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절영도 앞바다에 700여 척의 왜군 병선이 나타나기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한한 봄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용호마을(용호동 분동, 당시 30여 호 거주, 현 성모병원 맞은편)에 낯선 스님이 나타난다. 그 스님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왜의 사신으로 조선을 몇 차례 오갔고, 임진왜란 때는 역관으로 참전한 대마도 서산사 주지 게이테스 겐소였다. 그가 조선 전역을 행각 한 이유는 조선 침공 시 상륙하기 좋은 지점이 어디인가, 왜군이 한양으로 북상하려면 최적의 진격 노선은 어떻게 짜야 좋을까, 조선군의 해안 경계 및 군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가 수영만을 거쳐 용호만을 따라 지형을 살필 때 백운포에 접어들자 탄성을 질렀다. 군사와 병선의 엄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사를